

이 모 저 모

전북 생약협동조합 출범

8월25일 전주 동암고 대강당서

지난 8월25일 전북생약협동 조합이 출범했다. 전주 동암고 국민건강은 물론 재배농가에



◇ 전북 생약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승엽씨가 초대 조합장으로 추대됐다.

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는 전라북도 송화철 부지사, 주우철 농정국장, 한국생약협회 이종용 회장을 비롯 한약협회 김태진 전북지부장, 동암고등학교 양복규 이사장 등 내빈들과 8백여명의 재배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종용 회장은 전북생약조합이 우리생약살리기운동의 중심점으로 자리해 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어려운 시기에 이렇듯 뭉쳐 협동조합을 건설한 전북생약인들의 용기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초대 조합장으로 추대된 이승엽씨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 화주세에 힘입어 값싼 수입약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땅에서 생산되는 생약재가 우리 체질에 맞다는 신념으로 약용작물 재배에 임한다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농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내 생약농업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생약협동조합은 경쟁력 있는 농업, 협동하는 신농촌 건설을 목표로 △농민중심 운영 △농민지향봉사 △농민실익 사업을 위해 농민본위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지종합유통 시설 설치 △우수유통 전문인력 양성 △수출전략품목 육성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량종묘를 공동 생

산하고 가공식품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약시범포 운영과 대도시와 연계한 농산물 직판행사 실시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생약조합의 공동출자금은 약1억4천2백만원이다.

수입한약재 검사업무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구자춘)는 복지부가 내년부터 수입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중금속기준치를 현행 1백PPM에서 20PPM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과 관련,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현재 유통중인 각종 수입한약재와 생약제제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잔류농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 시험연구에 돌입키로 했다.

수협은 제기동 소재 의약품 시험연구소가 그동안 전문검사 인력과 시험장비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수입한약재 등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시험업무가 제대로 이행돼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돼 왔었다.

행정실무자교육

규정집발간

한국한약도매협회는 지난달 18~19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파라다이스에서 95년도 행정실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약사감시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을 겸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한도협은 협회 『규정집』을 발간 전국 회원에게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규정지에는 △정관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 요령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약사감시자율지도 운영 규정등이 실려 있다.

경중이나 임신중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장군풀 뿌리 술

장군풀 뿌리를 약명으로는 대황이라고 하는데 그 맛이 쓰고 액성은 차다. 이 뿌리는 강한 듯하면서도 쉽게 뺀아지므로 가루로 만들기 쉽다.

사용법 이 약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소주에 진하게 갠 뒤 환처에 붙이면 염증과 열, 진물 흐르는 것이 없어지며 새살이 돋게 된다.

우슬, 무릎·발목·관절질환에 탁월

지속적인 동통에도 다른 약물과 배합하여 큰 효력을 나타낸다.

관절염말고도 통풍, 하지의 마비와 무력증에도 요긴한 치료제가 된다. 단지 월

효능 위와 같은 반응은 다른 약에 비하여 훨씬 강하므로 동상에도 많이 활용된다. 그리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되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의 발육을 억제시키며 다른 수

생약인의소리

밀수품 황기, 폐기처분 마땅

얼마전, 밀수입해오다 적발된 황기가 공개입찰로 처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만 해도 포천에서 90t, 연천에서 30t 등 총 2백여t 정도의 황기가 생산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중에는 한약상가 여기저기에서 수입황기가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압류된 밀수 황기마저 공개처분 된다면 이는 결국 더 많은 밀수품

의 길을 열어주는 구실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래되고 있는 수입황기는 국산황기가 9천원 선인데 비해 농수준인 3천5백원 정도에 불과해, 밀수황기가 풀어질 경우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압류된 밀수품 황기는 즉각 소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향전 721〉

김성배

수입약재 등살에 농민만...

많은 양의 수입산약이 산지인 영주에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입니다.

또한 단위농협들에서는 수입 산약으로 차·음료 등 가공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를 내걸고 우리 것 찾기를 외치는 농민단체에서조차 값싼 수입약재를 선호하고 국산을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해야할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약회사들에서

는 요즘 많이 소비되고 있는 드링크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생약원료중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엑기스제로 수입해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더이상 생약농업을 계속해 나갈 의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전리 786〉

장지홍

침수약초 관리요령

습해로 병이 발생된 포기 와 부러진 가지는 빨리 제거한다. 토양과습으로 뿌리 썩음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수로를 정비한다. 토양이 유실된 포장은 김매기를 겸한 복주기로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킨다.

야도충·곰뽕이 등은 <마

릭스> <지오릭스> <카보입제>를 10a에 3~5kg 뿌린다.

진딧물·잎벌레·풀췌기 등은 <피리도>나 <란네이트> <메타시스톡스> 1천배액에 <디디브이피(DDVP)> 1천배액을 섞어 발생초기에 살포한다.

☆ ☆ ☆ ☆ 손쉬운 민간요법

관절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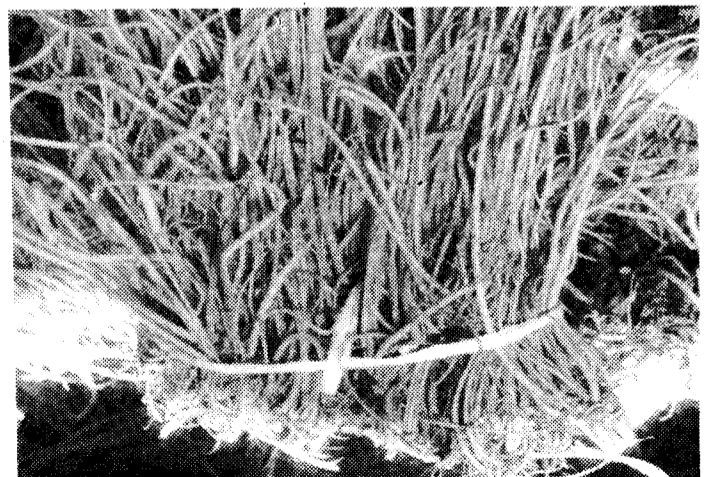
쇠무릎 뿌리(우슬)

쇠무릎은 약명으로는 우슬이라고 하는데 발가나 길췌에서 많이 자라는 여러해살이 들풀이다.

사용법 한 번에 8내지 20그램을 취하여 물 3홉을 붓고 2시간정도 서서히 끓여서 복용하는데 하루 3번 공복에 마신다.

효능 이 약은 허리부터 무릎, 발목 등의 관절 질환에 탁월한 효력을 나타낸다. 이런 효능들은 관절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유도하여 울혈이

된 것을 풀어 주고 가벼운 이뇨 작용으로 부종을 내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통, 관절염, 무릎 관절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비단 관절염 뿐만 아니라 골격과 근육에 힘이 약해지고 굴신이 자유스럽지 못하며 보행 장애와



◇ 쇠무릎뿌리(우슬)

을 수 없고 별절게 달아오른 것이 심할 때에 효과를 본다.

이런 효능은 환처에 열을 제거하면서 세균 침습을 막고 진액의 흐름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피부 조직 세포의 재생력을 촉진한다.

종의 세균에서도 항균 효과가 인정되었다.

끓는 물에 데었을 때에도 이 약으로 쉽게 치유된다. 또한 이 약을 꿀에 개서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통증을 참